

# 몽골제국의 카라코룸 유물로 본 초원길의 동서교역\*

김경나 단국대학교 몽골학과

본고에서는 13세기 몽골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룸(Qara-Qorum)을 초원교역로의 한 지점으로서 조명하고, 카라코룸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몽골제국의 교역의 편린을 확인함으로써 초원교역로의 연속성을 알아보았다.

몽골제국사의 일부로서 카라코룸을 언급한 사료와 역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출토된 유물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몽골 하르호린 박물관 소장 유물과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중심으로 초원길의 동서 교역의 흔적을 살펴보았다.

카라코룸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유물들에 대해 러시아 학자들은 카라코룸 현지 생산물이라기보다는 타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고려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거울은 당시 극동 지역과의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몽골제국 시기 중에서도 짧은 기간 수도였고 동서 교역으로서의 몽골을 비정할 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점에서 전환하여, 북방 초원교역로의 중간 지점으로서 주변 유물유적의 발굴 조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주제어** 카라코룸, 몽골제국, 고려청동거울, 초원길, 동서교역

## I. 머리말

칭기즈칸이 1220년 카라코룸(Qara-Qorum)을 몽골제국의 첫 수도로 정할 당시<sup>1</sup> 카라코룸은 중국과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주지하다시피, 13세기 몽골제국은 역사상 존재했던 국가 중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다. 내륙 아시아의 스텝지대와 그 주변의 정주 지역을 동시에 장악하는 데 성공했

\* 이 연구는 2017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sup>1</sup> 이개석은 카라코룸은 서정(西征) 기간 물자·병력 보급지 정도였을 뿐 고정된 수도로 보기 어렵다고 기술한 바 있다(이개석, 1996: 38). 그러나 김장구, 설배환 등은 칭기즈칸의 대외정복 활동과 함께 통치의 핵심 공간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점에서 당대인이 그것을 제국의 수도로 간주한 인식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김장구, 2010; 설배환, 2016).



그림 1 카라코룸의 현재 위치

다는 점이다.

카라코룸은 몽골어로 ‘검은 자갈밭’을 뜻하는 ‘Qara-Qorum’을 말하며, 중국 문헌에는 ‘客喇和林’ 또는 ‘和林’으로 나온다(이개석, 1996: 27-67; 정수일, 2012: 181). 현재 몽골 발음으로는 ‘하르허린(Хархорин)’으로 발음된다. 카라코룸이 위치한 오르콘(Orkhon) 계곡 지역은 전략적·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곳이자 몽골제국에서 신성한 영역이었다(이개석, 1996: 33-34).

그럼에도 몽골제국의 수도를 말할 때 상도(上都: 현재의 베이징)와 대도(大都) 등을 중심으로 여기고 카라코룸에 대한 글은 기행문이나 몽골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며, 초원을 지배했던 몽골제국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다.

몽골제국사의 일부로서 카라코룸의 흥망, 역로(驛路) 운영과 구성과 잠치(jamčči), 카르피니와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 기반한 분석 등 역사학계의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이개석, 1996; 김성수, 2008; 김장구, 2010; 설배환, 2016). 그러나 출토된 유물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보기 드물다. 몽골인들의 유목생활 방식은 후대의 사람들이 발굴할 정도로 많은 매장물을 남기기에 적합하지 않아 주목할 것이 많지 않다는 이유와 다른 지역에 비해 발굴유적이 적다는 연유에서다(데이비드, 2012: 63).

그러나 몽골 제국이 정복했던 세계 여러 도시 중 킵차크, 카라코룸 등 여러 도시의 유적지를 대상으로 발굴한 것은 19~20세기 러시아의 고고학자들이었다.

몽골의 카라코룸의 유적은 자본과 전문인력의 문제로 카라코룸 유적의 발굴은 대부분 러시아 고고학계와 협력하여 발굴되었다. 이 중 출토된 도자기 유물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예르미타주 박물관과 몽골 국립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중요 유물들은 몽골 하르호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원교역로의 한 지점으로서 카라코룸에 대해 조명하고, 카라코룸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몽골제국 교역의 편린을 확인함으로써 초원교역로의 연속성과 단절을 추적하고자 한다. 최근 출간된 러시아 학자와 예르미타주 박물관 측의 자료 및 필자의 하르호린 박물관 현지 조사 자료를 더하여 카라코룸이 몽골의 짧은 시기 수도로 있으면서 남겼던 기록과 유물을 통해 동서교류의 맥락으로서의 면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초원길이 서에서 동으로, 그리고 극동으로 가기 위한 중간지점으로서의 종합적 역할을 비추어보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의미를 갖는다.

## II. 13세기 기록에 나타난 카라코룸

카라코룸은 언제 어떻게 건설되었는가?

원래 칭기즈칸 시대의 제국 중심은 헤를렌(Kherulen)강 상류였지만 그보다 더 서쪽의 오르혼 강가 카라코룸에 수도를 정한 것은 그의 둘째 아들이자 제2대 칸인 우구데이 치세(1229~1241)이다. 『원사(元史)』에 의하면, 1235년 봄 우구데이는 오늘날의 카라코룸 부근에 있는 ‘달란다비스(일흔 고개)’에서 소집한 쿠릴타이(khuriltai; 몽골 황실 大會)에서 이곳을 제국의 수도로 선포하고, 1년 만에 ‘만안궁(萬安宮)’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라시드 앳 딘, 2005: 96-97).<sup>2</sup> 그러나 ‘흥원각비(興元閣碑)’에는 칭기즈칸 15년, 즉 경신년(庚申, 1220)에 도읍을 화림, 즉 카라코룸에 정했다

<sup>2</sup> 元史 2 「太宗本紀」太宗七年乙未條, “太宗七年乙未春, 城和林, 作萬安宮.”; 和林考(清黃楙裁撰, 王雲五主編 叢書集成(黑韃事略·西北域記·譯語·和林考·和林詩), 上海: 商務印書館, 1936), “太宗七年春, 遂城和林, 作萬安宮, 實始建都於太宗, 非由太祖矣.” 몽골인들은 우구데이 칸안의 새로운 수도를 오르두 발릭(Ordu-Baligh)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이후 카라코룸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Juvaini/Qazvini, p.273; Juvaini/Boyle, p.236).

는 기록이 있어, 펠리오 등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1220년 칭기즈칸 건설설을 주장한다.

사실 카라코룸에 관해서는 『원사』를 비롯해 주와이니(Juwaini)의 『세계 정복자의 역사』, 카르피니(G. Carpini)의 『몽골인들의 역사』(Carpini, 1980), 뤼브룩(G. Rubruquis)의 『여행기』(Ruysbroeck, 1990), 마르코폴로(Marco Polo)의 『동방견문록』(Polo, 1938), 라시드 앳 딘의 『집사(集史)』 등 여서 사서에 단편적이지만 적지 않은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 기록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프랑스의 동양학자 레뮤즈는 카라코룸 역사 지리 연구의 선구자로서 당서(唐書)에 근거하여 위치를 추정하였으나, 오르혼강 상류에 있었던 위구르 제국의 수도 하르발가스(Kharbalgas)와 혼동했다. 그의 연구와 이슬람 관련 사료를 검토한 사학자 도슨(Christopher H. Dawson)도 우구테이가 오르혼강변에 궁전을 지었다는 사실만 밝혀냈을 뿐, 구체적인 위치 확인에는 실패했다.

위치에 대한 이견은 19세기에 러시아 발굴조사단이 유물을 발굴하기까지 분분했으나, 확실한 것은 카르피니의 기록에서 당시 몽골 지역의 카라코룸이 ‘도시’로서의 기능을 했다는 것을 기술했다는 점에서 카라코룸이 몽골제국의 첫수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땅은 백분의 일도 비옥하지 않고, 흐르는 물로 관개를 하지 않는다면 과일이 열리지도 않으며, 실개천은 몇 개 있지만 강은 아주 드물다. 그래서 그 곳에는 카라카롬(Cara-carom, Caracorom)이라 불리는 꽤 큰 한 곳을 제외하면 마을이나 도시가 없다. 우리는 그 도시를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황제의 가장 큰 숙영지인 시라 오르다(Syra-Orda, syram ordam)에 있을 때 그 곳은 반나절 정도면 여행할 수 있는 거리만큼 가까웠다(Dawson, 1955: 5; Menestò, 1989: 230; 김장구, 2010: 78).

여기서 ‘카라 카롬’은 카라코룸을 뜻하며 ‘시라 오르다’는 시라 오르두(Sira ordu)로 구육 칸의 즉위식이 열린 곳이며, 카르피니가 카라코룸을 꽤 큰 도시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구테이는 금(金)을 정복한 후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중국 북방과 이슬람권을 정복했을 때 데리고 온 기술자들에게 궁전을 짓게 하여 도읍으로 삼았으며,

궁전에 부속된 상공업 지역을 상설치 했다.

이때부터 카라코룸은 제국의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초원 도시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자공급이 절실했기에, 교통수단으로서의 역참(驛站)이 필요했다. 카라코룸으로부터 각 정복지 사이에는 조밀한 역참망이 구축되었다. 특히 인접한 중국의 내지까지 37개의 역참을 두어 신속한 교통망을 구축하여 매일 각지로부터 식량과 술을 가득 실은 500대의 수레가 입성했다(김성수, 2008). 기록이나 유적으로 미루어보면, 카라코룸은 대칸의 궁전과 궁성, 행정관리와 상공업자들의 거주 구역, 그리고 온 도시를 에워싼 성채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칸 우구데이는 화려한 궁전에서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대부분은 초원의 계르에서 여전히 유목민 생활을 즐겼다고 한다. 이 점에서는 3대 구육칸이나 4대 몽케칸도 마찬가지였다. 우구데이는 계절마다 행궁 계르를 바꿔가면서 정사를 보았다고 전한다(정수일, 2012: 182).

몽케 치세의 말년까지 3대에 거쳐 약 24년 간(1235~1259) 몽골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룸의 면모에 관해서는 여러 방문 기록들이 전하는데, 그중 1254년 카라코룸을 방문한 프란체스코 수도사 기욤 뤼브룩의 기록이 매우 구체적이다.<sup>3</sup>

남쪽을 향해 중국식으로 지은 만안궁의 입구를 화려하게 장식한 은제 나뭇가지와 사자의 입에서는 말젖과 포도주, 마유주(馬乳酒), 봉밀주, 미주(米酒) 등 음료가 흘러 내리고, 궁전 내에는 기둥이 두 줄로 맞서 있으며, 맨 북쪽 대상(臺上)에 왕좌가 있다. 중앙 공간에는 헌주(獻酒)하는 대신들과 선물을 가져온 사신들이 대기하고 있다. 칸은 신처럼 정좌하고 있으며 그의 우측에는 남자들이, 좌측에는 여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황후 중 한 명만이 칸과 배석하고 있다. 그리고 4개의 성문이 달린 도

<sup>3</sup> 동아시아에 온 기독교인은 프란체스코회 수도사인 프랑스 출신의 뤼브룩(Guillaume de Rubruquis, 1220?~1293?)이다. 제7차 십자군원정이 실패하자, 십자군의 총지휘자였던 프랑스의 루이 9세는 뤼브룩을 특사로 몽골의 칸에게 파견하였다. 임무는 몽골과 협력해 이슬람 제국을 동서로 협공하자는 제안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는 1253년 지중해 동안의 아크르(Acre)를 출발해 흑해와 불가강을 지난 후 카르피니와 같은 노정을 밟아, 1254년 3월 천신만고 끝에 카라코룸에 다다랐다. 임무에 실패한 뤼브룩은 남아서 전도사업을 하려다 포기하고, 그해 5월 귀로에 올라 1255년 6월 키르포스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라틴어로 동유기를 저술한다. 실제로 마르코 폴로보다 약간 빠른 1240~1250년대에 카라코룸을 방문했던 이탈리아 수사 조반니 카르피니나 프랑스 선교사 루브룩의 윌리엄이 남긴 기행문에 따르면 카라코룸에는 거친 유목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시는 귀족관리와 무슬림, 중국인들이 사는 3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무슬림 지역은 주로 상업구이다. 성내에는 우상승배(불교)사원 12개소와 이슬람 마스지드(모스크)2개소, 교회당 1개소가 있다(라시드 앓 딘, 2005: 98; 김장구, 2012: 135).<sup>4</sup>

카라코룸의 크기와 외관은 이방인들에게 큰 이목을 끌지 못했을지 모르나, 궁궐 내부는 화려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구데이 카안은 궁에 비치할 코끼리·사자·말 등 동물 형상의 각종 금·은 술통 제작을 세공인들에게 지시했고, 포도주와 마유주로 채웠다. 각각의 술통 앞에 은제 주반(酒盤)을 하나씩 놓고 동물 입에서 포도주와 마유주를 흘려보냈다(라시드 앓 딘, 2005: 97). 프랑스인 금세공인 기욤 부쉬에(Guillaume Buchier)<sup>5</sup>도 그의 기록에서 유사한 서술을 남겼다.

은제나무 酒器를 뭉개 카안의 궁전 입구에 설치했다. 그것은 네 마리 은사자와 금도금 뱀의 형상을 했으며 이를 통해 포도주·마유주·흑마유주·꿀술·쌀술(terraccina)을 흘려보냈다. 곡주와 포도주 운반용으로 각기 소 8마리가 끄는 거대한 수레가 준비되었다(Ruysbroeck, 1990: 209~210; 라시드 앓 딘, 2005: 97의 각주 320; 김장구, 2012: 140).

이처럼 칸의 궁전은 보화와 식량, 음료로 가득 차 있었고, 사방에서 상인들이 가져온 각지의 물품들이 칸의 궁전 쌓여서 그것을 옮기기도 힘들 정도였다. 이전의 대신들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니, 구육 카안은 “그것을 지키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그것은] 아무런 이익도 내지 않는 것이다. 군대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다. 며칠 동안 그것을 나누어 주었고 모든 복속민들에게 주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남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약탈해 가라고 지시했다(라시드 앓 딘, 2005: 97).

<sup>4</sup> 한편 우구데이 카안은 만안궁 근처에 이방인을 위한 종교시설도 세웠다. 모스크와 교회도 있었지만, 13세기 루브룩을 비롯한 서방 선교사들이나 사신들이 수도 카라코룸을 방문하고 남긴 여러 여행기에 따르면 당시 이곳에는 12개소의 불교사원이 있었으며, 사원 안에서는 밀종의 육자대명왕 진언(六字大明王眞言) ‘옴마니 반메훔’을 주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한다.

<sup>5</sup> 기욤 부시에는 1242년 벨그라드(현 세르비아 수도)에서 몽골인의 포로가 되었다(Ettinghausen, 1947: 95); 설배환, 2016: 213 재인용).



그림 2 카라코룸에 남아있는 돌거북(2015. 7. 4. 필자 촬영)

물론 몽골제국 출현 이전에도 유라시아 동서를 오가는 일은 빈번했다. 기원전 5세기경 헤로도토스, 2세기 프톨레마이오스의 기록에서 우랄산맥을 넘어 천산산맥에 이르는 초원길과 박트리아, 소그디아나, 파미르 동서의 오아시스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러한 서방의 기록은 당시 그리스계 상인, 이후 소그드계 상인의 활동과도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었다(一雄著作集編集委員編, 1993, 313-315; 김성수, 2008: 230 재인용). 그럼에도 특히 몽골 제국 시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전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유라시아의 중심지들을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연결했으며, 역참을 통해 늘 장거리 길이 확보되어 효율적이고 안전한 여행을 담보했다는 데에 있다.

몽골제국의 번성에 짧은 영화를 누렸던 초원의 카라코룸.

카라코룸의 옛터에 자리한 현재 에르텐 조 사원의 규모는 남북 150m에 동서 1,000m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만안궁 터의 돌거북 귀부(龜趺) 한 기뿐이다. 몽케 사망 후 그의 두 동생인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카 사이의 치열한 계위 다툼이 벌어져 결국 쿠빌라이가 승리하면서 수도를 베이징(大都)으로 옮기

자 카라코룸은 역사 뒤로 사라지게 되었고, 14세기 후반 원이 붕괴하면서 짧은 시간 영화를 누렸던 고도는 그 터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카라코룸에서 다양하고 상이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한 사실은 몽골제국이 지향한 다원주의와 통합의 일단을 보여주며, 초원에서 동서 문명교류의 장이었음을 드러낸다.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로 인해 13~14세기 유라시아 대륙에 몽골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출현했다. 통일 몽골제국의 관할 하에 역참(驛站)제도를 비롯한 동서 교통체계와 소통구조가 구축되었고, 문명 간의 교류를 범세계적으로 촉진하며,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과 함께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 III. 카라코룸의 유물

몽골제국이 사라진 후, 카라코룸은 20세기 초에 이르러 러시아 학자들의 연구와 현장 발굴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19세기 들어 중앙아시아에서 고고학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서양의 동양 학자들의 주된 난제는 카라코룸의 위치를 정의하는 것이었다. 1826년 프랑스인 동양학자 라뮤즈(Abel Remusat)는 중국 자료를 토대로 카라코룸에 관한 기사를 쓴 바 있다. 그의 기사에서 카라코룸의 남쪽에 오르혼강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기록했으나, 정확한 위치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에 대한 의문은 19세기 말 러시아 고고학자들과 사학자들의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풀려나갔다.

러시아인들의 카라코룸 탐사는 우르가(Urga, 옛 울란바타르의 이름)의 러시아 영사였던 파데리크(I.O. Paderink)가 1871년 카라코룸에 처음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17km 이내에 위치한 하르발가스와 카라코룸의 남쪽 유적을 탐방하였고, 1889년 야드린체프(N.M.Yadrintsev)는 에르텐 조 사원 근처에 위치한 오르혼강 동편 도시유적의 폐허를 조사했다(Елихина, 2018: 30).

한편 1877년 저명한 역사학자 포즈드네프(Pozdneev)는 몽문연대기 “Erdeni-Yin Erike” 번역 작업 중, 본문에서 카라코룸의 위치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다. 연대기에서는 항가이의 남쪽 기슭 오르혼강 유역에 위치한 에르데니 조 사원 근

처를 카라코룸의 위치로 기술하였다. 카라코룸과 관련된 서로 다른 지리적 명칭과 역사적 정보는 연대기에 담겨있다(Бира, 2001: 45).

당시 학자들은 몽문연대기 등 문헌을 토대로 그 위치를 오르혼강 상류의 우안, 향가이 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에르덴 조(Erdene zuu) 사원(김경나, 2016: 17)<sup>6</sup> 일대에 비정했다. 문헌 기록에 기댄 추정 중 다행히 카라코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이 발견되었다. 에르데니 조 사원을 지을 때 인근에 있는 무너진 카라코룸 성채의 석재를 가져다 썼는데, 방치된 일부 석재 중에서 카라코룸과 관련된 비문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고고학자 라들로프(V. V. Radlov)는 1891년에 에르덴 조 사원의 성벽을 조사하면서 카라코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비문을 발견했다. 라들로프는 중국 문서와 맞아들어가며 평행을 이루는 두 개의 몽골 비문 조각을 발표했고, 몽케(1251-1259)의 통치 기간의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1912년 8월, 코트비치(V.L. Kotvich)는 이 비문의 또 다른 세 개의 조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이 모든 조각들이 모두 하나의 비문의 일부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몽케 칸의 통치 기간 중인 1256년 카라코룸에 위치한 5층 탑의 건설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탑은 1311년과 1346년에 두 번 재건되었다. 1346년에 재건된 후, 이 탑은 흥원각(興元閣)이라 명명되었다. 이 비문은 카라코룸의 비석에 새겨져 현재까지 그 일부가 보존되고 있다. 학자 펠리오(P. Pelliot)는 비문 조각들을 대조한 연구 결과를 1925년 출판했다(Елихина, 2018: 31).

당시 러시아 발굴단은 각각 한문이 첨부된 몽골어 비문조각 2개와 3개를 수습했는데, 그 조각은 흥원각비(興元閣碑)의 잔해였다. 그 잔해의 해석은 프랑스의 동양학자 펠리오가 담당했다. 그가 원대의 문필가 유임(許有壬)이 저술한 ‘칙사응

<sup>6</sup> 에르덴 조 사원은 몽골 최초의 티베트 불교사원이자 몽골제국의 옛 왕궁터에 지어졌다는 점에서 몽골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칭기즈칸의 21대손인 아브타이 사인칸(Абтай сайн хаан, 1554~1588)의 지시로 1585년 에르덴 조 사원에 중앙 전각이 지어졌는데, 당시 사원 공사에는 옛 궁궐의 부재(部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몽골 불교사와 건축사에서 차지하는 의의가 크다. 에르덴 조 사원은 1760년부터 증축 및 재건되기 시작하여 1808년부터 본격적인 확장공사가 이루어졌다. 중건 이후 에르덴 조 사원의 외벽(400×400m)은 108개의 불탑으로 이루어졌으며, 내부는 60여 개소의 전각에 천여 명의 승려들이 수학하는 거대한 사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전각들은 대부분 티베트와 만주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전각의 위치와 방향 배치는 몽골의 전통방식을 따랐다.

원각비(勅賜興元閣碑)의 비문 일부라는 것과 이 비는 원래 카라코룸 궁전 안에 세워졌던 비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사원의 건축과 카라코룸 위치의 관련이 밝혀지게 되었다(Ишдорж et al., 2001: 10; Pelliot, 1925).

이러한 역사적 연대기, 비석 기념물들을 통한 연구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카라코룸의 위치는 20세기 초 들어 정립되었다.

첫 번째 고고학적 연구는 부키니치(D. D Bukinich)의 탐험대에 의해 1933년 수행되었다.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컬렉션의 이 발굴 유적은 1935년에 지역 보관소로 옮겨졌다. 부키니치의 발굴 유물은 도자기 조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유약을 바른 청자 1점, 녹로(轆轤) 1점, 자축(磁軸) 2점, 5점의 회색 도자기 및 불교 탑 모형이 포함되었다. 그의 연구 결과, 당시 발굴된 도자 조각의 연대는 12-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서, 역사 기록과 발굴된 유물의 조합이 들어 맞게 되었다.

이후 보다 대대적이면서도 세밀한 발굴은 러시아 사회과학연구단의 총괄수장 키셀레프(S.V. Kiselev, 1905~1962)와 몽골의 역사 및 고고학 전문가들의 감독하에 1948~1949년 소비에트 과학 연구단과 몽골 과학위원회의 몽골 역사적 민족지학 탐사에 의해 연구되었다. 당시 몽골 측 감독관은 몽골의 석학 엔.페를레(Н. Перле)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가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948~1949년 사이 러시아 조사단은 카라코룸의 유적 일부에 대한 발굴작업을 진행하였고, 특히 우구데이 궁전 유지에 대한 발굴작업의 결과는 루브록 등 방문자들의 기록과 정확히 부합되었다. 이처럼 문헌기록과 출토유물, 그리고 서방 중세 여행기록 등에 의해 몽골제국의 첫 수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탐사를 통해 발견된 유물들 대부분은 도자기 조각들이다. 대부분의 도자기 조각들은 12~15세기의 중국 도자기 가마 제품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당시 발굴된 유물의 상당수는 울란바타르에 위치한 국립 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연구 결과 중 일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보관되었다. 카라코룸에서 발굴된 에르미타주 컬렉션은 405개의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장된 카라코룸 컬렉션은 건축물 일부(타일, 벽화), 점토 조각품, 메타 제품, 섬유, 악세서리 및 기타 항목들(벼 껍질, 조각된 석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Бира,

2001: 45).

러시아 발굴단은 카라코룸의 반복된 침입, 파괴와 소각을 고려할 때, 이 도자기 조각들은 몽골에서 대중적으로 쓰였던 물건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건축물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코룸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13세기 몽골인들의 삶과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며, 문화와 다양한 제조, 공예, 예술, 종교, 무역 및 국제 관계 발전에 대해 증언하는 자료이다.

### 1.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유물

러시아 학자 유.이.엘리시나(Ю.И.Елихина)는 카라코룸에서 발굴된 십이지신이 새겨진 청동거울을 고려에서 온 것이라 추정하였다.<sup>7</sup> 당대 비슷한 유형의 중국의 청동거울이 중국 내에서도 발견되지만, 특히 이 청동거울의 출처를 고려로 추정한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카라코룸 출토, 고려 청동 십이지무늬거울, 6.8×17.8cm, 13세기,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번호 MP-3153



**그림 4** 출토지 미상, 고려 청동 십이지신무늬거울, 고려시대, 17.8×17.8cm,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소장

<sup>7</sup> 국내에서는 카라코룸에서 출토된 고려 청동 거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Елихина, 2018: 203).

## 그림 5

카라코룸 출토, 고려 청동 십이지  
무늬거울, 6.8×17.8cm, 13세기,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번호 MP-3153



## 그림 6

카라코룸 출토, 청색 향로  
10.5cm×9.5cm, 14세기 초반  
추정,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번호 MP-3129



## 그림 7

(좌) 카라코룸 출토, 수막새,  
12cm, 13세기,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번호 MP-3997



## 그림 8

(우) 카라코룸 출토, 수막새,  
12cm, 13세기,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번호 MP-3999



주지하다시피 한반도에서 제작된 청동거울은 기원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  
가고,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거울의 형태가 다양해진다(전익환  
외, 2008: 97).<sup>8</sup> 원형에서 벗어나 각진 모양과 손잡이가 달린 거울도 출현하고, 두

<sup>8</sup> 전익환, 박장식, 이재성, 백지혜는 한반도에서 출토된 청동거울 중에는 중국 각 시대의 거울을

마리 용이 불을 내뿜는 이미지가 부조된 거울을 비롯해 화려한 무늬가 들어가기도 했다. 아울러 여성들의 화장 도구로 널리 사용되면서 생산량도 급격히 늘어났다. 이 고려시기의 거울이 카라코룸에서 발견되는 것은 쿠빌라이 이전의 몽골과 고려의 교류를 보여주는 편린으로 비추어 볼 수 있다. 물론 청동거울은 아시아 전역에서 출토되고, 그 주조 모양을 단순히 1:1 비교로서 재단할 수는 없으나, 명징한 유물 발굴로서 카라코룸에서 발견된 고려 거울의 존재는 초원길의 한 지점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카라코룸 출토 유물들은 대부분이 도자와 기와 유물인 것이 특징이다.

카라코룸에서는 도기가 여러 곳에서 발굴되었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온 수입 제품으로 판명되었다. 도자기 외에, 도자기 제품의 파편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이는 몽골제국시기 이전의 당대(618~907) 하북성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판명되었다(Елихина, 2018: 35).

한편 1948~1949년에 발굴된 컬렉션에 등장한 카라코룸 유물들은 착색 유약과 다양한 산화 방지제, 구리 화합물이 이전 시기와 다른 양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 2. 몽골 하르호린 박물관 소장 유물

옛 카라코룸, 현재 몽골의 어워르항가이 아이막 지역 오르혼강 유역에 위치한 하르호린은 2004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오르혼강을 따라 위치한 문화 유적들이 20세기 들어 속속 발굴되면서, 그 유물이 발굴된 해당 면적이 121,967헥타르에 달하게 되었다. 오르혼강 유역 에르덴 조 사원에서 멀지 않은 ‘모일팅 암(Moilin Am)’에는 옛 몽골 선조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석기 시대의 유적과 방목지가 남아있다. 또한 고대 위구르국의 수도였던 하르발가스(Kharbargas)의 성터가 가까이 있으며, 에르덴 조 사원 주변에는 돌궐시대 비문과

방제하거나 재주한 것과 독자적인 것이 함께 존재하며 시기적으로도 중국과 동시대에 만들어진 것과 후대에 제작된 것이 혼재하기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 때문에 청동거울의 형태와 문양면에 새겨진 무늬만으로 시기와 제작지를 판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고찰하였다.



그림 9 2000년 에르덴 조 사원 발굴 모습(하르호린 박물관 제공)

상호 사원, 터브형 사원 등 불교 사원 유적들이 남아 있다.

이렇듯 석기시대부터 17세기까지의 오르혼 지역의 몽골 문화 유물과 발굴된 고고학적 유적들은 2010년에 개관한 하르호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sup>9</sup>

몽골·독일 합동 답사팀은 2011년 고대 위구르의 수도였던 하르발가스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펼쳤고, 이후 몽골·카자흐스탄 합동 조사팀은 불강 아이막의 바얀노르 숲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았던 투르크 시대의 대규모 무덤벽화를 발굴하였으며, 이 고대 무덤은 여러 토우(土偶), 금 주화, 금으로 제작된 생활용품 등이 발견되어 매우 희귀한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00년 몽골·독일 합동 답사팀은 에르덴 조 사원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 하르호린 시 유적 발굴작업에서 조각 장식품, 병, 기와, 토기, 도자기 조각과 도자기 벽돌을 굽던 타원형의 가마를 발견하였다. 이 유물들의 대부분은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초로 추정되며, 유물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마에서는 사자, 용 머리 모양의 조각, 뿔이 달린 용 형태의 조각들, 초록색 에나멜이 표면에 발려진 조각들이 출토되었다. 또한 가마에서는 흙으로 제작된 사자 모양, 용의 형상을 한 미술품들이 발굴되어, 카라코룸의 옛 모습 복원의 실마리를 줄 수 있는 물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 유물들은 하르호린 박물관 소장 물품 중 동서교역의 흔적을 보여주는 대표 유물들이다.

<sup>9</sup> 하르호린 박물관은 몽골과 일본 정부의 기금으로 세워졌으며, 몽골제국의 첫수도였던 카라코룸과 관련된 역사 유적을 보관 및 전시하고 있다. 필자는 2015년 7월, 2018년 10월 두 차례 방문하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유물과 자료를 촬영하였다.



그림 10 쿠빌라이 한의 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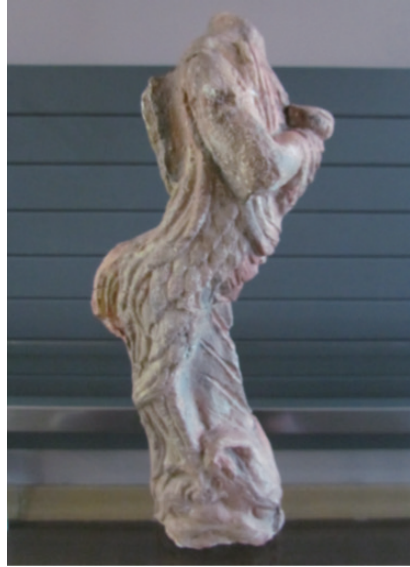


그림 11 칼라빈카 조각상

그림 10은 쿠빌라이 칸 시기에 사용되었던 패자로, 파스파 문자로 5행에 걸쳐 쓰여 있으며 ‘영원한 하늘 아래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죄’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르코 폴로가 몽골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 패자를 지니고 갔다고 전한다.

그림 11은 칼라빈카<sup>10</sup>라는 전설의 새를 조각한 이 유물은 하르호린 시 주변에서 발굴된 14개의 가마 중 한 가마에서 출토되었으며 이전에는 몽골에서 한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 13세기 유물로 추정되는 이 조각은 불교설화에 등장하는 동물이기에, 당시 불교를 숭상하던 국가에서 조공으로 왔을 가능성에 대해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정확히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sup>10</sup> 가릉빈가(迦陵頻伽)는 범어인 갈라빈카(Kalavinka)를 한자로 번역한 것으로 줄여서 ‘빈가조(頻伽鳥)’라 부르기도 한다. 이 새는 불경에 나타나는 상상의 새로 극락에 깃들여 산다고 하는데, 그 형상은 인두조신상(人頭鳥身像)을 나타낸다. 이 신조(神鳥)는 “자태가 매우 아름다울 뿐 아니라 소리 또한 아름답고 묘하다”하여 모음조(妙音鳥)·호음조(好音鳥)·미음조(美音鳥)라고도 하며, “극락에 깃들여 산다”고 하여 극락조(極樂鳥)라고도 부른다(국립문화재연구소편집부, 2001 참조).



그림 12 13세기 은 주화



그림 13 13세기 은 주화



그림 14 벽사(辟邪) 가면



그림 15 이집트 가면

그림 12, 13의 몽골 주화(13세기) 아랍 대장공에게 제작 주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은 주화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수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는데, 우구데이 칸 시절의 은 주화는 하르호린시의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이 주화에는 ‘카라코룸(Qara-Qorum)’ 이름이 온전히 새겨져 있어 하르호린 지역에서 주화가 제작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어거데이 칸이 제국을 세웠던 시기인 1237~1238년에 제작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4의 가면은 1949년 러시아 학자 키셀레브를 초청하여 발굴했을 당시 출토된 것으로 13세기 유물로 추정되며, 조각의 장식이 당대 다른 출토 유물에 비해 상당히 정교한 것이 특징이다. 벽사(僻邪)를 위한 탈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반도의 처용탈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주목된다.

그림 15의 이집트 가면이 하르호린시 주변에서 출토된 것은 13세기 몽골과 아프리카 대륙 간의 상업 거래를 증명하는 유물이다.

하르호린 박물관에서는 스키타이 시기의 황금 유물 또한 소장하고 있다. 최초의 유목국가였던 스키타이의 황금 유물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지역에서 발굴되지만, 몽골의 카라코룸에서도 등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초원길의 극동에는 한반도가 자리 잡고 있다. 서역에서 초원을 통해 올 때, 거쳐야 했던 지점들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IV. 맺음말

2014년 5월, 몽골 전 대통령 차히아긴 엘벡도르지는 ‘움직일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Нүүх үү, үлдэх үү?”)라는 강연을 통해 몽골인들의 큰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옛 몽골제국의 수도인 카라코룸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여론 조성의 시도였다. 포화 상태로 교통과 주거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몽골의 현재 수도 울란바타르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옛 몽골제국의 영광에 대한 민족주의를 자극시킨 이 발언은 한동안 몽골인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금까지도 몽골인들에게 회자 되면서 옛 카라코룸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크로드, 혹은 동서문명교류의 지점은 대규모 유적이 발굴되는 곳을 기점으로 그 교류의 흔적을 찾아 구성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짧은 영화를 누렸고 사라졌지만, 여전히 몽골제국의 흔적을 품고 있는 카라코룸을 중심으로 초원의 동서교류를 조명하고자 했다.

칭기즈칸과 쿠빌라이, 쿠릴타이, 몽골제국시기의 광역 교통망에 대한 연구 등 국내외에서 몽골이 세계를 광활하게 지배했던 때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꾸준히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카라코룸에 대한 주목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보통 실크로드의 3대 루트로 사막길, 바닷길, 초원길을 꼽지만, 실크로드 지도를 그릴 때에는 몽골을 위시한 북방 초원은 외면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몽골제국의 확장 시기 북방 초원로의 문명교류 창구를 맡았던 카라코룸의 역사와 그 유물을 통한 중흥 무역의 흔적을 찾고자 하였다. 카라코룸에 대한 기록과 발굴된 유물에서는 몽골인들이 당시 얼마나 방대한 지역과 교류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카라코룸에서 발굴된 고려 청동거울, 처용과 유사한 벽사가면은 카라코룸과 고려의 교류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초원로의 광대한 교역은 후대 대륙 전역으로 연결되어 유라시아 각지의 교통로 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상공업자를 우대했던 어거테이와 쿠빌라이의 정책은 교통망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제국의 유통망 확대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끌어왔다.

카라코룸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의 통행로, 다양한 물자와 문화, 종교가 교차하며 얽혀 있었던 곳이었다. 북방초원로의 중간지점에서 이루어진 동서문물 교류의 흔적은 곧 제국의 길에서 동서를 누비며 유라시아를 단고 살던 인류에게 더욱 확대된 열린 공간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고일: 2018년 11월 16일 | 심사일: 2018년 12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9년 1월 31일

##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편집부. 2001. 『한국고고학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경나. 2016. 『17~19세기 몽골 불교사원의 다창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수. 2008. “몽골제국시기 유라시아 광역 교통망 잠치(jamci).” 『몽골학』 25권. 한국몽골학회.
- 김장구. 2010. “플라노 드 카르피니의 『몽골인의 역사』에 보이는 몽골사 인식.” 『동국사학』 49권.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_\_\_\_\_. 2012. “대몽골국 초기 이문화(異文化)와 궁정의 외교전례(外交典禮)”, 『동국사학』 53권,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데이비드 O. 모건. 권용철 옮김. 2012. 『몽골족의 역사』. MONOGRAPH.
- 라시드 앓 딘, 김호동 역. 2005. 『칸의 후예들』. 사계절.
- 설배환. 2016. 『蒙·元제국 쿠릴타이(Quriltai) 연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宇野伸浩; 村岡 倫; 松田 孝一 등이 원조 후기 카라코룸에 건설된 페르시아문 연구(元朝後期カラコルム城市ハーンカー建設記念ペルシア語碑文の研究).
- 이개석. 1996. “원대(元代)의 카라코룸, 그 흥기(興起)와 성쇠(盛衰)”. 『몽골학』 4권. 한국몽골학회, 27-67.
- 전익환·박장식·이재성·백지혜. 2008. “한반도 출토 청동거울의 표면처리 기법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22권.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 정수일. 2012. 『초원 실크로드를 가다』. 창비.
- 一雄著作集編集委員編. 1993. 『一雄著作集』 第2卷. 汲古書院.
- 白石典之著. チンギス=カンの考古学(世界の考古学(19)). 同成社, 二〇〇一.
- 松川 節. カラコルム出土1348年漢蒙碑文—嶺北省右丞郎中總管收糧記—. 勅賜興元閣碑 モンゴル文面訳註.
- Anne Sklebitz, Glazed Ceramics from Karakorum: The Distribution and Use of Chinese Ceramics in the Craftsmen Quarter of the Old-Mongolian Capital During the 13th–14th Century A. D.
- Carpini, John of Plano. 1980. “History of the Mongols.”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Toronto·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Christopher Dawson. 1955. *The Mongol Mission. Narratives and Letters of the Franciscan Missionaries in Mongolia and China in the thirteenth and fourteenth centuries*. London.
- Giovanni, da Pian del Carpine Archbishop of Antivari. 1989. *Storia dei Mongoli*, Spoleto.
- Willem van Ruysbroeck. 1990.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pp.209~210; 김호동 역주. 『칸의 후예들』.
- Paul Pelliot. 1925. Note sur Karakorum, *Journal Asiatique*, Vol. CCVI.
- Polo, Marco. 1938. *The Description of the World*. tr. A. C. Moule & Paul Pelliot,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Limited.

- Richard Ettinghausen. 1947. "Olschki, Guillaume Boucher (Book Review)," Middle East Journal vol.1 January 1.
- Ruysbroeck, Willem van. 1990.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his Journey to the Court of the Great Khan Möngke, 1253-1255*, tr. Peter A. Jackson, London: Hakluyt Society.
- Монгол нутаг дахь түүх. 1999. соёлын дурсгал. Улаанбаатар.
- С. Чулуун. 2015. Хубилай хаан ба түүнийг залгамжлагчид, редактор Ц.Цэрэндорж, Улаанбаатар.
- Х. Пэрлээ. 1959. Монгол ард улсын эрт дундад үеийн хот суурины товчоон, Улаанбаатар.
- Ц. Ишдорж, Х.Пүрэвтогтох. 2001. Монголын түүх, соёл, түүх бичлэгийн судалгаа III, Интерпресс хэвлэл, Улаанбаатар.
- Ч. Далай. 1992. Монголын түүх (1260-1388), гутгаар дэвтэр, Улаанбаатар.
- Ш. Бира. 2001. Монголын түүх, соёл, түүх бичлэгийн судалгаа III, Олон Улсын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Холбоо, Улаанбаатар.
- Ю.И. Елихина. 2018. Наследие Каракорум в Эрмитаже - Экспедиция С.В.Киселёва: 1948-1949 гг. Улаанбаатар.
- <http://www.kharakhorummuseum.mn/>
- [http://www.kharakhorummuseum.mn/back\\_old/components/com\\_weblinks/virtualtour2/Vittual\\_museum.html](http://www.kharakhorummuseum.mn/back_old/components/com_weblinks/virtualtour2/Vittual_museum.html)

## Abstract

## The East-West Trade through the Steppe Roads in Qara-Qorum Relics of the Mongol Empire

Kyongna Kim Dankook University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continuity of the meadow trade route through a study of Qara-Qurum, the capital of the Mongol empire in the 13th century, as a point of the prairie trade route, and confirming aspects of trade in the Mongol empire through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capital.

As a part of the Mongol Empire, previous research on Qara-Qurum had focused on studying its fossil records and city origins, but discussions on the excavated artifacts were largely inactive.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traces of eastern and western trade on the meadow road with evidence derived from the relics housed at the Mongol KharKhorin Museum and remains kept secure at the Hermitage Museum of Russia.

Russian scholars believe most of the remains unearthed in Qara-Qurum came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were not local to the region. Bronze mirrors, which are believed to have come from Goryeo, show signs of exchanges with the Far East.

Qara-Qurum was the capital city of the Mongol Empire during the short period, and did not get attention as the East-West Trade through the steppe roads at that time. However, given the historicity of Qara-Qurum, its excavation and investigation are important steps in studies of the Mongol Empire. To set Qara-Qurum as the middle point of the northern steppe trade route are also needed.

**Keywords** | Qara-Qurum (Kharkhurin), Mongol Empire, Goryeo Bronze Mirror, Steppe Road, East-West trade

